



"2023 세계잼버리는 새만금에서"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에 위해 오만 무스캇 아랍총회에 참석한 진총 정무부지사, 독립국악원 단원들과 총회에 참석한 아랍 회원들과 새만금을 홍보하고 있다.

### 교육부 28일 공개 예정

## 국정교과서

# 일선 학교서 퇴출 위기

역사학계·시민단체에 이어 시도교육감들까지 잇달아 국정화 반대 나서  
추진 핵심인물이 차은택 외삼촌으로 드러나는 등 최순실 개입 터져나와

오는 28일 공개 예정인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에 이어 실제로 초·중·고교를 관장하는 교육감들까지 잇달아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은 중심으로 보조교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역사교사들의 반대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교과서가 발간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민적 압박에 박근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 '국정화 철회가 거국내각의 첫 번째 정책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로 추

진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전히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교과서 집필진도 이 때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시안이 나올 경우 곧바로 문제점을 확인해 공개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안이 나오

면 현재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을 중심으로 3~4일 내에 검토를 거쳐 총론적인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보조교재 집필진들이 시대별 검토를 거쳐 국정 역사교과서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기간도 짧아 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극우적 발상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시안이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민형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국민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폭주각시처럼 놀아난 정권을 극도로 불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국정교과서 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인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전북과 강원·광주·세종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만들고 있으며 역사 교사와 현장 교사 등 31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와 상관없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작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도민들의 성난 민심

## 분노를 녹여 촛불을 들다

한일장신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이어  
전주·군산 등 도내 곳곳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행진의 함성이 전북지역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12일 전국을 뒤흔들 민중총궐기를 앞둔 이번 주가 시국선언의 최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북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한일장신대학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비롯해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지역에서 시국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한일장신대 도서관 앞에서는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일장신대 시국선언은 전북대와 전주대, 원광대, 전주교대 등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도 도내 각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함께 도내 각 지역에서도 촛불 민심은 불타오를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후 6시 풍남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익산에서는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군산은 롯데

마트 맞은편에서 촛불집회를 펼쳐 나간다. 민중노총 전북분부는 오는 9일 정권퇴진을 위한 총력결의대회로 촛불 열기를 불태운다는 계획이다. 종교계도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불길이 확대되고 있다. 전주교 전주교구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전주 중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여는 등 시국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전주교 전주교구는 도내 각 성당 분당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성난 민심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와 시민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은 최대 20여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열기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12일 총궐기까지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도, 한미FTA 피해농가에 422억 지원

전북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도와 블루베리 등의 농가를 지원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포도와 블루베리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규모를 1,391ha, 422억5,4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의 가격 하락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는 1,103ha에 65억3,400만 원이다. 또 FTA 협정으로 재배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사업은 287ha에 357억2,000만 원이다. 피해보전 면적을 품목별로 보면

당근 5ha·노지포도 422ha·시설포도 364ha·블루베리 312ha 등이다. 폐업지원의 경우 블루베리가 153ha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 77ha, 노지포도 57ha 순이다. 특히 블루베리 폐업신청이 많은 이유는 아시아베리와 아로니아 등 다양한 베리류가 등장하면서 소비패턴의 변화했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폐업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올해 안에 폐업을 완료하고, 해당 읍면동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복숭아와 자두, 사과 등 현재 인기있는 작목으로 전환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

2009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라북도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JTV 전주방송, 전주매일신문